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내민 작은 손
마주하는 밝은 미소
함께하는 즐거움

손길 나눔

아름다운 봉사활동이 묻어나는 행복한 소식지 **2006** 봄호 | 통권26호



충청남도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Chungcheongnam-do Youth Volunteer Center



어느 마을에 현명한 노인이 살고 있었다.
하루는 이노인이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딱 한 사람에게만
행복의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했다.
사람들은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마을에서 가장 예쁜 아가씨를 노인에게 보냈다.
그러나 노인은 그녀를 그냥 돌려보냈다.
다음에는 돈 많은 사람을 보냈지만 역시 돌려보냈다.
힘이 센 장사, 똑똑한 사람을 보내도 마찬가지였다.
어느날, 노인은 몸에 상처를 입은 작은 새를 안고
울고 있는 소년을 만나게 되었다.
노인은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지금 네가 흘리고 있는 눈물이 가장 소중한 것이란다.
남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거든.”

- 「행복한 동행」 4월호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센터로 가자

중창

스 일들 ... 인데요

어떤 ... 계신지요

공 및 지원
 및 보급
 및 관리, 확인서 발급
 및 단체와의 협력사업 추
 및 지역사회발전 운동 전개

말이당~ ^^; 쉽게말하면~~~
 사활동을 유익하고 재미있게 할
 활동거리를 함께 계획해보고, 우
 활동 확인도 해주고, 우리동네, 유
 시 봉사활동 할 곳이 있는 지...
 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지
 을 통해 우리고장 청소년들의
 임! 그리고 봉사활동이란
 교육도 한답니다

2006년 충청남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소개

구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시 기	담당자
목 적 사 업	청소년자원봉사자 모집·교육·활동배치·기록관리 내실화 사업	c/s관리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한 봉사활동 기록관리의 체계화 및 학교·지역사회 활동터전을 통한 자원봉사자 모집	연 중	김영이
	청소년자원봉사 마일리지제, 터전인정제	c/s관리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활동터전의 인센티브제공	연 중	김영이
	해외청소년봉사단 파견사업	해외문화봉사자 선발 및 한국문화홍보 봉사활동	9월 중	오제상
	청소년시설 북카페 봉사활동	개인 보유 도서의 재활용을 통한 청소년수련관 내 북카페 운영	연 중	이영미
	세계청소년자원봉사자의날(GYSD)기념 청소년자원봉사 체험한마당	청소년자원봉사 체험부스 운영	5월 중	이영미
	세대통합 봉사활동 운영 및 지원	세대가 함께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봉사활동	연 중	이선열
	대학생 청년봉사단 조직·운영	대학생봉사단 운영 활성지원 및 교육, 소외청소년들의 멘토링 봉사단 지원	연 중	김영이
	중·고 청소년 동아리 봉사단 조직·운영	자원봉사동아리 활동지원(25개동아리)	연 중	이영미
청소년 어머니 봉사단 조직·운영	어머니 봉사단 조직을 통하여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지도	연 중	이선열	
센 터 특 성 화 사 업	청소년자원봉사 지역교류활동	타 국가와 지역교류	3월 중	오제상
	청소년자원봉사 시범학교 운영	시범학교 운영(1개교)	연 중	오제상
	제8회 청소년자원봉사박람회	우수봉사자를 선발 시상 및 전시	연 중	이선열
	청소년자원봉사 연수·홍보사업 (지도자, 운영위원, 소양교육, 홍보사업)	소양교육, 지도자 연수 및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연 중	김영이
	청소년자원봉사 자연·문화체험 자원봉사활동	문화체험·환경정화활동 지원	연 중	김영이
	청소년자원봉사활동 교실	매주 토요일 봉사 실시	연 중	이영미
	청소년 전문 자원봉사단	전문영역봉사동아리 활동지원 (9개 동아리)	연 중	이영미
도 사 업	청소년자원봉사활동 국제교류	타 국가와 국제교류	3월 중	오제상
	지역 청소년위원회 운영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 및 사업 참여, 평가 등	연 중	오제상
	청소년 송년 큰잔치	청소년 건전한 놀이문화 및 새로운 청소년 문화 형성	11월~12월	이선열
	청소년 여름문화학교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없었던 활동들을 여름방학동안 체험하여 창의력과 문화적 감수성 함양	7월~8월	이선열
	손길나눔	자원봉사 소식지 제작 발송	연 4회	이영미

청소년자원봉사 지역교류활동(국제교류)

1. 사업목적

우리나라의 문화를 소개, 홍보함으로써 우리 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새롭게 인식하여 민족 자긍심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청소년들의 해외봉사 경험의 기회 제공을 통하여 외국의 청소년들과 우의증진 및 상대국 문화체험으로 21세기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며 국제 감각과 경쟁력을 가진 청소년을 양성하고자 함

2. 추진방침

- 우리의 전통문화와 청소년들의 생활 및 활동 문화를 소개하여 대한민국을 알리는 계기마련
- 참가대상은 청소년문화홍보단, 노력봉사활동(일손돕기) 및 교육보조 활동으로 구분하여 전개
- 참가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및 목적을 강화하여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으로 전개
- 해외봉사활동 후 지속적인 국내 봉사활동으로 연계

3. 사업개요

- 사업명 : 청소년자원봉사 지역교류활동
(베트남 롱안성과 청소년자원봉사·문화교류활동)
- 주 제 : 세계속의 한국의 얼을 전하는 청소년자원봉사자
- 기 간 : 2006년 3월 20일 ~ 29일 (9박 10일)
- 활동장소 : 베트남(롱안성 일대)
- 참가인원 : 총 17명(청소년 13명, 지도자 3명, 방송기자 1명)
- 주요내용 : 일손돕기, 문화홍보, 공연활동, 기관방문 등
- 주 최 : 충청남도청
- 주 관 : 충청남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





청소년자원봉사 소양교육 안내

1. 교육내용

- 자원봉사의 개념 및 의의
-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흐름 및 중요성
-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영역
- 무엇을 할 것인가(프로그램소개)
 - 교과와 연계한 봉사활동
 - 동아리활동과 연계한 봉사활동
-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효과성
- 청소년자원봉사의 특성 및 자세
-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실천단계
- 대학에서의 봉사활동 반영
 - 특기적성과 연계한 봉사활동
 - 지역특성과 연계한 봉사활동
-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잘하려면

2. 확인서

- 확인서의 발급신청은 아래의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양식에 기재 및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웹신청 (방안1)	학교자체처리 (방안2)
신청 방법	1. 학생개인별로 신청 2. 본센터 (www.bongsai.or.kr)회원가입 3. 봉사활동 하고싶어요 클릭 4. 본인 학교명의 소양교육 프로그램 선택 5. 활동명을 클릭한후 신청하기를 클릭	1. 본센터에서 교육후 학교계획에 의거 해당학교에서 자체 처리함
불참자 처리	1. 교육당일 강의자에게 불참자는 표시하시어 명렬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비고	1. 미가입 및 미신청 학생은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습니다 2. 반드시 학생 개개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1. 본센터에서 교육 후 별도의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3. 소양교육 신청서

- 본센터 홈페이지 www.bongsai.or.kr 접속
- 공지사항 92번 「소양교육 신청안내」의 첨부물에서 다운로드 사용

충청남도내 봉사활동을 위한 활동터전 안내입니다.

충청남도내 15개 시군에 있는 봉사활동터전 안내이므로 다음호에도 계속됩니다.

공주시

- **곰두리어린이집**
 -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903-105호
 - ☎ 881-0182
 - 담당자 : 박은미선생님
- **남부장애인복지관**
 -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 627-1
 - ☎ 856-7071
 - 담당자 : 이윤정선생님
- **사회복지법인 명주원**
 - 공주시 반포면 송곡리 268
 - ☎ 857-7296
 - 담당자 : 이수현선생님
- **공주시노인주간보호센터**
 - 공주시 금성동 20-13
 - ☎ 856-3606
 - 담당자 : 김미숙선생님
- **사회복지법인 동곡요양원**
 - 공주시 반포면 송곡리 188-7
 - ☎ 857-7121
 - 담당자 : 강정미선생님
- **원로원**
 - 공주시 금홍동 산 16-5
 - ☎ 853-2347
 - 담당자 : 김정애총무님

당진군

- **당진군 청소년자원봉사센터**
 - 당진군 합덕읍 중동리 274-1 소들문화회관 3층
 - ☎ 363-0389
 - 담당자 : 김종만선생님
- **소망의 집**
 - 당진군 면천면 죽동리 138-2
 - ☎ 356-0518,28
 - 담당자 : 현천순선생님
- **당진우체국**
 - 당진군 당진읍 당진우체국 233-1
 - ☎ 355-2800
 - 담당자 : 김희영선생님
- **평안마을**
 - 당진군 당진읍 구룡리 552
 - ☎ 355-2080
 - 담당자 : 이미영선생님

금산군

- **금산도서관**
 - 금산군 금산읍 상옥리 467-160
 - ☎ 753-4710
 - 담당자 : 장정하선생님
- **사회복지법인 향림원**
 -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566
 - ☎ 752-5219
 - 담당자 : 김난희부장님
- **사회복지법인 금산밀알의 집**
 - 금산군 제원면 동곡리 335-7
 - ☎ 754-0813
 - 담당자 : 박세아전도사님
- **인삼골건강원**
 - 금산군 금산읍 계진리 273
 - ☎ 753-7407
 - 담당자 : 임진화선생님

아산시

- **메디케어 요양원**
 - 아산시 둔포면 신행리 106-3
 - ☎ 531-8264
 - 담당자 : 김시중원장님
- **아름다운선교회 다정마을**
 - 아산시 도고면 신통리 87
 - ☎ 542-1311
 - 담당자 : 심다정선생님
- **아산시장애인복지관**
 - 아산시 실용동 192-1
 - ☎ 540-2355
 - 담당자 : 김원찬선생님
- **사랑의집짓기운동천안아산시**
 - 아산시 도고면 금산리 15-1
 - ☎ 541-1057
 - 담당자 : 조향숙선생님
- **아산시보건소정신보건센터**
 - 아산시 모종동 573-2 아산시보건소
 - ☎ 540-2536
 - 담당자 : 김은미선생님
- **정애노인의집**
 - 아산시 선장면 신통리 136-7
 - ☎ 544-0819
 - 담당자 : 사무국장님

우리가 하는 봉사활동 바르게 알고 하자!

학생 봉사활동 Q&A

Q 학생봉사활동 연간 시간은?

A	중학교 고등학교 (전학년)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봉사활동	계
		연간 5시간 이상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을 포함하여 연간 20시간 이상	20시간 이상

Q 학생봉사활동 인정시간은?

A 평일과 토요일에는 1일 3시간, 공휴일 및 토요일휴무일, 방학중에는 1일 6시간까지 인정한다.

Q 헌혈의 기록은?

A 헌혈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기재하지 않고 횟수 및 일자를 누계 기록한다.

Q 봉사활동을 위한 이동 시간도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되나?

A 봉사활동을 위한 왕복이동 시간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Q 봉사활동 평가도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되나?

A 학생봉사활동은 계획에서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봉사학습 과정으로서의 활동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봉사활동 실행 후 활동 소감을 발표하고 실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차기 활동에 대한 환류를 위한 평가활동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한다.

Q 신입생 및 졸업생의 입학 전 및 졸업 후 실시한 봉사활동 인정은?

A 신입생의 경우 입학 전 봉사활동, 졸업생의 경우 졸업식을 마치고 한 봉사활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Q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실시한 봉사활동 인정은?

A 영리 단체 및 업체의 봉사활동은 인정되지 않는다.(ex. 개인병원,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Q 학교 일과 중에 실시한 선도부, 환경도우미, 방송부 활동의 봉사 시간 인정 여부는?

A 학교 일과 중의 활동은 선행활동으로 인정하고, 일과 외에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만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한다.

봉사활동을 잘하기 위한 10가지

1. 책임감을 가져라.

자원 봉사 활동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라. 약속시간은 항상 지키도록 한다. 만약 약속 시간에 갈 수 없으면 그곳의 누군가에게 전화로 알려준다. 활동처의 사람들이 자원봉사자에게 거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일하는 것을 보여준다.

2. 활동에 관한 업무세칙을 받아라.

하는 활동이 아주 단순한 일이 아니면 담당자와 함께 활동 세칙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다. 어떤 기관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직무에 관해서 매우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기관에서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하라'는 식으로 자원봉사자 재량에 맡기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활동 세칙을 받는다는 것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3. 반응을 물어보라.

대부 분의 정규업무에 있어서는 자신의 일에 대한 반응을 기대한다. 그러나 자원봉사계에서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만약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안내나 혹은 이해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지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을 수 있다.

4. 자신의 한계를 알아라.

자신 의 능력이상으로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무엇을 하고 싶다는 혹은 하고 싶지 않다는 것에 대한 죄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다. 관계하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가 현실이 되도록 그들과 한계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이다.

5. 자원체계를 만들어라.

자원 봉사 활동은 매우 도전적이고 정서적인 경험일 수 있다.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 즉, 다른 자원봉사자들, 친구들, 가족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협조를 얻는데 좋은 일이다. 그리고, 자신의 열의, 자신이 묻고 싶은 것들에 이것저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라.

6. 조정을 하라.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자가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다. 자신의 능력에 맞는 활동을 사전에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7. 현실적이어야 한다.

물론 자신이 하는 활동이 어떤 효과가 있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기대가 비현실적이라면 직원이 개입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고 그들과 마음 편한 관계를 갖도록 한다. 자신의 기대를 현실적인 수준에 맞추는 한 가지 방법은 사전에 담당자와 함께 업무와 활동 효과에 관해 충분히 이야기하는 것이다. 활동의 효과는 조금씩 느린 속도로 온다. 그러므로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활동할 필요가 있다.

8. 무리하지 말라.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는 결국 지치고 만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일하는 보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히려 과중한 일은 흥미를 잃게 하고, 또 쉽게 열의가 식어버리게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적게 시작하고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다. 자신의 에너지 수준을 알고 서둘지 말아야 한다.

9. 만약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만약 자신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이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아 그만 두거나 또는 상황이 좋지 않으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의무를 마치고 담당자에게 다른 일을 맡겨 달라고 부탁한다. 만약 자신이 마음에 먹고 있는 일을 다 마쳤거나 혹은 기관에서 원하는 일을 완수했다면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그만 둘 수 있을 것이다.

10. 새로운 활동을 하고 싶은 때를 알아라.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활동을 좋아하고 있더라도 1~2년 후에는 같은 기관이나 혹은 다른 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해볼 때가 있을 지도 모른다. 그래서 몇 개월마다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 괜찮은지 확실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일이 맞지 않는다면 자신이 해보고 싶은 다른 일이 있는지 알아본다. 변화와 도전은 사람들로 하여금 융통성있게 하고 변화시킨다. 새로운 자원봉사 활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활동을 저버린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인생의 질을 위한 건전한 생각인 것이다.

“10대들이 모르는 어른들의 말!”

과연 나는 몇 개나 알고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 ⊗ 주전부리 요즘 세대 말로 군것질, 간식거리.
- ⊗ 터울 형제간에 나이 차이를 말하는 것.
- ⊗ 마수걸이 어떤 일을 시작해 맨 처음 얻은 소득.
- ⊗ 녀마주이 현 종이나 녀마 따위를 모으는 것 또는 그 일을 하는 사람.
- ⊗ 부지깅이 아궁이에서 불을 땠 때 불꽃이 좀 더 잘 일어나도록 헤집는데 쓰는 막대기.
- ⊗ 감냥 자기 능력을 스스로 겸손하게 말할 때 사용한다.
- ⊗ 자리끼 잠자리에서 마시기 위하여 머리맡에 떠 놓는 물.
- ⊗ 바투 짝 잡다. 물체가 가까이 있다.
- ⊗ 구들 온돌.
- ⊗ 곤죽 밥이 몹시 질거나 땅이 질척질척한 상태.
- ⊗ 감질 바라는 마음이 너무 큰데, 성이 차지 않는 것.
- ⊗ 너스레 남을 농락하려고 수다스럽게 늘어놓는 말, 또는 그 말씀씨.
- ⊗ 몽니 심술부리다, 심술궂다.
- ⊗ 설레발 몹시 서둘러 대며 부산을 피우다.
- ⊗ 외탁 성격이나 생김새, 혹은 행동이 외가쪽을 닮았다는 말
- ⊗ 추파 이성에게 은근하게 보내는 눈길
- ⊗ 데면데면 대하는 태도가 친숙성이 없고 덤덤한 모양.
- ⊗ 따따부따 딱딱한 말로 이러쿵 저러쿵 따지는 모양.
- ⊗ 허투루 대수롭지 않게. 아무렇게나.
- ⊗ 꼼수 꾀꾀한 수단이나 방법
- ⊗ 휘뚜루마뚜루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마구 해치우는 모양.
- ⊗ 추렴 여러 사람이 돈이나 물건 따위를 얼마씩 나누어 냄.
- ⊗ 어깃장 어떤 일을 할 때 끼어들어서 참견을 하거나 훼방을 놓음.
- ⊗ 쥐락펴락 자기 손아귀에 넣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모양.
- ⊗ 모르쇠 아는 것이나 모르는 것이나 다 모른다고 잡아떼는 일.

여러분들은 과연 몇 개나 알고 있나요?

청소년들은 은어나 비속어 같은 올바르지 못한 말의 사용은 자제하고 아름다운 우리나라말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사랑을 전달하는 봉황음악봉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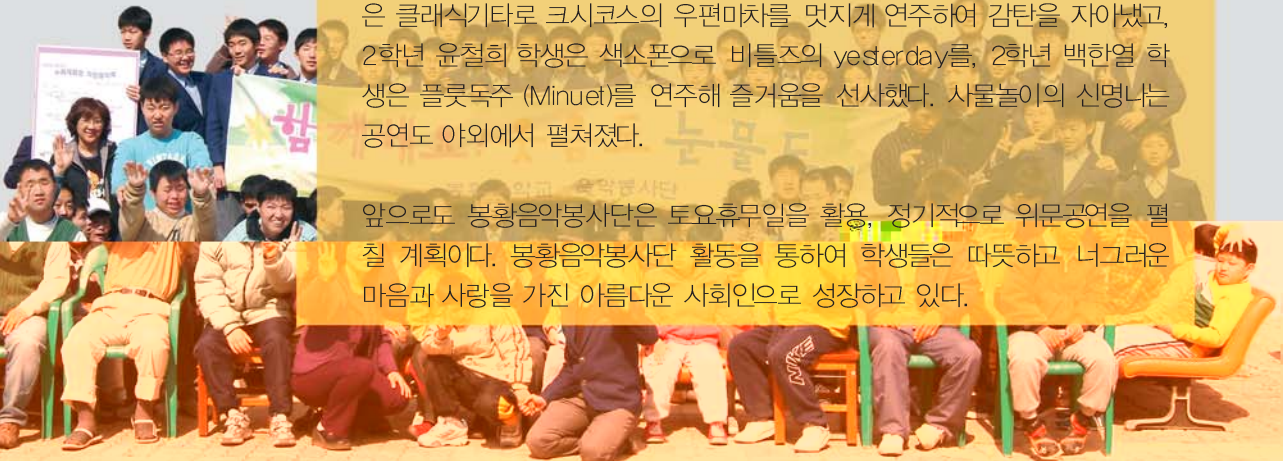
봉황중학교

봉황중학교(교장 홍성우)는 봉황음악봉사단을 창단하여 토요일을 활용하여 꾸준히 공주 관내의 복지시설에 위문공연을 펼쳐 사랑을 전달하고 있다. 2005년 6월, 새롭게 창단된 봉황음악봉사단은 지도교사인 박영주 선생님을 중심으로 약 60여명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동곡요양원, 소망의집 등의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리코더합주, 플룻, 색소폰 등의 악기연주를 통해 아름다운 선율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달했다. 12월에는 공주문예회관에서 모두가 참여하는 작은 음악회를 열고 뜻 깊은 한 해를 마무리 지었다.



2006년 3월 25일 토요일, 봉황음악봉사단은 탄천의 누리재활원에서 올해의 첫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리코더합주, 클래식기타, 사물놀이연주 등이 준비되었다. 리코더합주에서는 G. bizet의 Farandole, Carmen, Spanische Suite와 어머니, 개구리와 올챙이, 작은 세상 등의 친숙한 곡이 연주되어 누리재활원 가족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처음 봉사활동에 참여한 1학년 김영현 학생은 클래식기타로 크시코스의 우편마차를 멋지게 연주하여 감탄을 자아냈고, 2학년 윤철희 학생은 색소폰으로 비틀즈의 yesterday를, 2학년 백한열 학생은 플룻독주 (Minuet)를 연주해 즐거움을 선사했다. 사물놀이의 신명나는 공연도 야외에서 펼쳐졌다.

앞으로도 봉황음악봉사단은 토요일을 활용, 정기적으로 위문공연을 펼칠 계획이다. 봉황음악봉사단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따뜻하고 너그러운 마음과 사랑을 가진 아름다운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있다.



봉사활동, 시작이 반이다.

목천중학교 3학년 유혜진

“애들아 봉사활동하자!
오늘은 어디로 가냐 하면은”

거의 매주 토요일,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씩은 우리학교 학생들은 봉사활동을 합니다. 요즘에는 학교 뒤뜰에 쏟아지는 낙엽을 쓰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쌀쌀한 아침에 하는 봉사활동이지만 어느 누구도 인상을 쓰는 학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지는 않았었습니다. 봉사활동 시범학교, 처음 들어 보았던 말이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선 우리학교가 봉사활동 시범학교를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시범학교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아이들의 반응은 '어? 그런 것도 있었나? 이번 기회에 시간이나 채우자.' 하는 심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들은 시간이 가며 차차 없어졌습니다. 근 일년간 저희들의 봉사활동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선 우리 학교에서는 소양 교육을 통해 봉사활동의 궁극증을 풀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성관 에서 소양교육, 말로만 들으면 딱딱할 것도 같고 지루할 것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투덜대며 강당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 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충남 청소년 자원봉사센터의 선생님께서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재미있게 설명해 주신 덕으로 아이들의 궁금증과 따분함은 금세 날려 버릴 수 있었고 봉사활동의 개념과 목적 같은 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봉사자와 장애우의 일기를 소개하면서 설명해 주셨는데 어떻게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고, 또한 서로 웃으며 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식에 맞추는, 시간을 채우는 그런 것이 아님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봉사활

동을 시간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봉사활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노력을 다른 사람이나 사회를 위해 쓰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애! 이런 게 봉사활동 이라는 거구나.' 라는 인식의 표정들이 보였습니다.

봉사활동 문예대회 행사를 하였습니다. 봉사활동에 대한 심행시, 표어,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를 하였는데 봉사활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이란 네 글자로 아이들은 자신들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재치 넘치는 사행시를 지었습니다. 역시 봉사활동 모범학교답게 신선한 사행시와 표어가 나왔습니다. 학생 모두가 다 참여를 하는 뜻 깊고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학교의 봉사활동은 조금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체험활동인 복지시설을 방문하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동아리 연합으로 쌀을 모으고 썩을 뜯어 썩떡을 만들어 복지단체에 가져다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학교 주변에는 봄 냄새 물씬한 썩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나면 학교 주변에 가서 썩을 캐 모았습니다. 어머니들께선 썩을 한 봉지 가득 채워 아이들 손에 보내시곤 하셨습니다. 우리도 봉사활동 시간에 썩을 커다란 자루에 한 가득 채워 많은 썩들을 모았습니다. 그 썩을 하나하나 다듬어 아이들 손은 파랗게 풀물이 들었습니다. 또한 쌀 모으는 것은 부모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아래 진행되어 좋은 일에 쓰는 것이라 하니 한 봉지씩, 어느 어머니께선 두 봉지씩 보내 주셨습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쌀을 모았습니다. 다 모아 놓고 보니 복지시설에 보내고도 남을 정도로 많은 쌀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모은 쌀과 썩을 빗갓간에 맡겼습니다. 우리는 교실에서 색종이를 이용하여 카네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때가 어버이날을 앞두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학생들은 하나씩 카네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카네이션 만들기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카네이션을 감는 철사에 손이 굵히기도 하고, 옷핀에 손이 찢리기도 했지만, 모두 불평 없이 카네이

션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보 호시설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정성을 다해 만들었고, 선생님들과 함께 만드는 카네이션이기에 훨씬 더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각 반에서 만든 카네이션을 박스에 모아보니 정말 아이들의 봉사 활동에 대한 열의만큼, 열심히 만든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잘 해보려고 했던 남자아이들의 서툰 솜씨는 선생님들과 여자 아이들로 하여금 웃음을 짓게 만들었고, 다시 한 번 여학생들의 손길이 필요했으며, 그렇게 한 박스가 채 안되게 만든 카네이션과 썩떡을 가지고 신아원, 사랑과 평화의 집, 살롬의 집, 효자의 집, 목천읍 서리의 경로당으로 동아리별로 나누어 갔습니다. 저는 경로당에 가게 되었는데 도착해보니 할머니와 할아버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님께 만들어온 카네이션을 왼쪽 가슴에 달아드렸고, 썩떡과 음료수, 과일을 차려드렸습니다. 할머니, 할아버님께서 환한 웃음을 지으셨고, 합창부 아이들은 어버이 은혜를 불러드리고 트로트도 불러드리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즐거워 보이시는 할머니와 할아버님을 보며 우리도 덩달아 즐거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캠페인활동은 우리가 직접 홍보전단지들을 만들고 피켓을 제작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캠페인활동은 질서 지키기, 공중도덕 지키기, 흡연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것이었는데 학생들의 흡연이나 폭력이 우리 학교에선 드문 일이지만 좀 더 건전한 학생으로 거듭나는데 발판이 되고자 했습니다. 피켓을 제작하는 과정은 무척 재미있었습니다. 각 반에 세 개 씩 만들었는데, 아이들의 신선한 구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빠 목 아파요.', '그까이꺼 금연하자.' 이런 많은 아이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해 하나의 구호를 만들어 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구호에 굉장히 만족하는 것 같았습니다. 각 반의 반장, 부반장들은 자기반에서 만든 피켓을 들고서 등교시간에 맞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학교에 오르는 고등학생, 중학생, 지나가는 어른들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든 분들에게 흡연의 나쁜 점과 학교폭력 근절에 대해 확실히 알려주었습니다.

나누는 기쁨 쌓이는 봉사라는 슬로건으로 음식을 만들어 보호시설에 계신 분들에게 나누어 주는 활동이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토요일 날 음식을 만들 테니까 손을 잘 씻어오는 것을 전날 종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썩떡도 음식을 만드는 것이었지만 방앗간

에 맡긴 것이라 조금 아쉬움이 남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 손으로 직접 음식을 만들어 나누어 드리는 것이었기에 더욱 설레고 재미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토요일, 학교에 가보니 선생님들께서 음식을 만들 재료를 가지고 가사실로 향하는 분주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3학년 여자아이들은 선생님 옆에서서 재료를 다듬고 있었고 저도 얼른 그 옆으로 가서 힘을 보태었습니다. 잡채, 파전, 수박화채 중 우리 반 여자아이들은 수박화채를 만들었습니다. 커다란 수박을 잘라서 큰 통 두 개를 채웠고 거기에 파인애플이나 복숭아, 천도복숭아 등 여러 가지 과일과 주스와 사이다를 넣고 얼음을 넣어 냉장고에 차게 보관하면 완성. 우리가 한 수박화채는 맛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간단해서 다른 모듬보다도 빨리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듬은 다른 반의 파전을 도와주러 갔습니다. 양파를 썰는 데 아이들은 눈물이 난다며 손 사레를 쳤습니다. 다른 해산물과 야채를 채썰기해서 한 군데에 넣고 걸쭉하게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여자 선생님들께서 주부 경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쉽게 도와주실 수 있었습니다. 우선 만든 반죽을 몇 개의 그릇으로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가스레인지에 켜고 불로 달군 프라이팬에 반죽을 펼쳤습니다. 지글지글하며 구워지는 파전 냄새는 군침이 흐를 정도로 맛있게 보였습니다. 먼저 굽는 것은 쉬웠는데, 뒤집으려니 너무 어려웠습니다. 평소에 엄마 일을 도와드렸다면 이런 일을 쉽게 할 수 있었을 텐데 파전이 찢어지는 아이들도 있었고, 태워먹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는 어렵사리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손을 데어가며 기름에 튀며 만든 아이들의 파전 생각보다 많은 양이어서 우리는 선생님들과 동그랗게 모여 앉아 먹어보니 역시 생긴 것만큼 맛도 있었습니다. 이걸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준다고 생각하니 상상만으로도 배가 부르고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잡채도 완성하고 다 만든 것을 정성스레 포장했습니다. 선생님들과 다른 반 아이들은 음식이 식기 전에 빨리 갖다드려야 한다면서 부지런히 떠나셨고 우리 몇몇은 가고 난 가사 실을 정리 했습니다. 가사 실은 실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치우는 데만 1시간이 걸렸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요리를 남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이 매우 뜻 깊었고, 사람들이 이 요리들을 먹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이런 게 봉사활동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봉사활동은 우리나라 역사바로알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간 곳은 '국학원' 들으면 참 생소한 곳이었습니다. 늘 버스를 타고 다니며 '저기가 어딜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지만 한번도 들른 적은 없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초등학교의 협조로 초등학교버스를 타고 국학원에 도착했습니다. 국학원은 생각보다 정말 큰 곳이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곳이 있다니 놀랍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이곳이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우리 역사를 바르게 알리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열의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봉사활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열의는 이만큼 크지 못하다는데 조금은 씁쓸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얼마나 유구한지, 얼마나 광대인지 잘 알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환경시설 보존활동으로 석오(石吾) 선생의 생가주변과 우리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독립기념관 환경정리를 했습니다. 이동녕 선생 생가에 가기 전에 이동녕 선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동녕 선생께선 우리나라의 광복을 위해 힘써주신 분이셨고, 활발한 광복운동을 전개하신 분이었습니다. 선생께선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헌신한 아름다운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이동녕 선생의 업적과 활동을 바탕으로 만화를 만들기도 했고, 연표도 만들고 신문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독립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꽃과 시원한 바람을 벗 삼아 환경정화를 하는 아이들의 얼굴엔 한껏 들뜬 표정이 깃들었습니다. 쓰레기를 줍고 잡초를 뽑고 하면서 우리도 독립기념관에 무엇인가 도움을 주었다는 생각이 들어 흐뭇했습니다. 그다음 우리는 이동녕 선생 생가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동녕 선생 생가는 우리학교 주변에 있었기에 걸어가도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이동녕 선생 생가에 가까워짐에 따라 기대감 또한 컸습니다. 도착하고 나서 솔직히 실망이었습니다. 이렇게 초라하다니, 나라에선 과연 관리를 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소홀하고 누추하였습니다. 석오 선생에 대한 안내판이 전부였습니다. 친일파들은 땡땡거리며 살고 있는데 비해 애국지사들의 후손들은 그렇지 못함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내내 우리 정부의 열악한 자원에 정말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더 열심히 풀을 뽑고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아이들 또한 더욱 열심히 해서 그 주위에는 잡초하나 없을 정도로 깨끗해졌습니다. 이렇게라도 봉사활동을 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봉사활동이 없었다면 이렇게 위대하신 분에 대해 관심조차 없었

을 제가 생각되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고장 복지도도를 만드는 것과 그 복지도도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고장의 문화 유적이나 자기가 사는 동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지도도를 만들며 '아 우리 주변에 이렇게나 많은 복지시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늘 '시간이 없다. 장소가 없다.'라며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지도도를 만들어 보니 다음에 봉사활동을 하러 갈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갈팡질팡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계획을 잡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색연필로 굵게 색을 칠한 복지도도를 선생님께 제출하고 우리가 사는 고장에 직접 가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저마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우리가 지란 곳인 박문수 어사님의 열이 숨쉬는 박문수 어사 생가와 은석산 주변 환경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박문수 어사 생가와 은석산은 초등학교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의 가장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애착이 가서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의 도움으로 그 곳까지 차를 타고 갈 수 있었습니다. 도착하고 보니 사람들의 등산로를 제외하고는 풀이 무성했습니다. 또한 그 근처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었기에 쓰레기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가방을 내려놓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커다란 쓰레기 봉지에 하나 가득 풀을 뽑았고, 쓰레기를 줍기도 하고 분리수거도 했습니다.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시키는 강압적인 것. 점수 따기'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이야말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봉사활동에 밑바탕이 되는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와 학생이 서로 웃으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봉사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학교에서도 봉사를 강압적으로 시키지 말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봉사를 권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했던 봉사가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모든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동안의 봉사가 남들을 이해하며 그들에게 진정한 도움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봉사활동은 하면 할수록 부족한 느낌이 들고, 그때마다 늘 새로운 교훈을 주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입니다. 봉사활동!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부분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채우려 앞으로 더 많은 봉사활동을 해야겠습니다.

참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아름다운 조리 나눔터”

병천고등학교 조리과 2학년 안지원

2005년 봄, 부푼 꿈을 안고 2학년이 된 나는 조리과에 들어오게 되었다. 내 꿈은 조리로서 인정받고 성공을 이뤄 노년이 되었을 때 한적한 곳에 복지 시설을 차려 베풀고 봉사하며 사는 일이다. 그런데 때마침 조리과 봉사동아리인 ‘아름다운 조리 나눔터’라는 부서의 목적과 나의 생각이 같아서 ‘아름다운 조리 나눔터’라는 동아리의 부원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아름다운 조리 나눔터’는 1학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부서로 2, 3학년 조리과 학생들에게만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조리 기능의 향상과 어려운 분들을 돕자는 뜻 깊은 목적을 두고 있는 동아리이다. 평소부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봉사하는 방법을 몰랐고 마음처럼 쉽게 실천할 수 없어서 항상 아쉬웠던 나는 2학년에 올라와 드디어 ‘아름다운 조리 나눔터’에 가입할 수 있어서 몹시 설레고 두근두근하며 의욕이 넘쳐흘렀다.

그렇게 가입하게 된 ‘아름다운 조리 나눔터’에서 봉사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운 후의 따뜻한 피어나는 마음의 온기와 그 분들이 나를 통해서 한순간이나마 미소 지을 수 있다는 뿌듯함과 행복감을 얻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조리 나눔터’는 조리 기능 향상을 더불어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행운을 주었다.

‘아름다운 조리 나눔터’에서 하는 봉사 활동이란 그저 형식적으로만 좋은 환경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것이 아닌 우리의 따뜻한 마음처럼 뜨겁게 올라오는 정성과 사랑을 담아 만든 맛있는 식사 한 끼를 무의탁 노인 분들에게 대접하며 함께 대화하고 사랑과 친절을 나누는 일이었다.

우리 ‘아름다운 조리 나눔터’는 무의탁 노인 분들에게 보다 질 좋은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싶어서 토스트 판매를 하고 있다. 매 주 수요일 아침 7시, 우리 동아리 부원들은 선생님과 함께 식사 대접에 필

요한 비용을 거두기 위하여 학생들과 교직원을 상대로 토스트를 5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나와 선생님과 언니들은 여러 종류의 야채들을 채 썰어 계란 반죽을 굽고, 오빠들은 빵을 굽고 마요네즈와 토마토케첩, 양겨자 등의 여러 종류의 소스를 섞어 토스트 소스를 만들며, 몇몇의 아이들은 토스트를 사러온 학생과 선생님들께 판매를 하고 있다.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고생하며 만든 보람이 있는지 판매하고 있는 토스트는 영양도 있고, 맛도 좋아 제법 인기를 끌고 있다. 아침 7시부터 만들기 시작하여 30인분을 정도를 만들게 되는데 1, 2, 3학년 각 반의 담임선생님들이 일찍부터 오셔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반 학생들의 인원수에 맞게 토스트를 예약하시고 가는 경우도 많고, 아침을 먹고 있지 않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아침을 해결할 수 있는 토스트는 판매가 아주 순조롭고 30분도 안 되어서 300인분이 금방 동이 나버리는 엄청난 인기도 끌고 있다.

3학년 선배님들과 선생님은 화요일 방과 후부터 남으셔서 수요일 아침에 만들 토스트 재료 준비와 반죽 만들 준비를 하고 가시는데 매 주마다 꾸준히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즐겁게 일하시는 모습을 볼 때면 선생님과 선배님들이 그렇게 존경스러울 수가 없다.

거두어드린 수익금은 그리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우리들은 노인 분들께 화려하고 호화스러운 식사가 아닌 소박하지만 정성과 사랑을 담은 식사를 대접해드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동전 하나 하나, 지폐 한 장 한 장에는 나와 우리 부원들 그리고 선생님의 땀과 정성, 따뜻한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수익금을 모은 뒤 우리 ‘아름다운 조리 나눔터’에서는 무의탁 노인 분들께 맛있는 사랑의 식사 한 끼를 대접해드릴 수 있게 된다.

무의탁 노인분들을 모시고 하는 식사 대접은 매 달

두 번째 주 토요일 한달에 한번 뿐이지만 우리에게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들이다. 토요일이 오기 전 우리 부원들은 양식실습실에 모여 노인 분들께서 좋아하실만한 음식 메뉴를 선정하고 이가 없으셔서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더욱 연하고 맛깔스러운 음식들을 만들 수 있을지 상의하고 결정을 한다.

드디어 기다리던 토요일이 오게 되면 우리 '아름다운 조리 나눔터' 부원들은 반가운 손님맞이 준비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30여인분의 식사를 대량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말할 틈조차 없이 바쁘지만 어른들이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생각만 하면 절로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매번 노인 분들이 좋아하시는 한식 위주의 음식들로 새로운 메뉴를 선정하며 갈비, 비빔밥, 미역국, 잡채, 된장국, 불고기, 동그랑땡, 나물 등등 너무 자극적이지 않고 어른들이 드시기에 담백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가며 음식을 만들고는 한다.

음식 만들기에 조금 지칠 때면 갑작스럽게 교장선생님께서 실습실에 방문하셔서 우리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심과 동시에 많은 힘을 주고 가신다. 바쁜 마음에 표현하진 못했지만 항상 용기를 주시는 교장선생님이 존경스러웠다.

보글보글 음식물에 김이 올라오고 맛있는 냄새들이 코를 찌를 때면 어른들이 곧 도착하신다는 소식이 전해온다. 어른들이 도착하신다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평가실로 음식들은 분주히 나르기 시작한다.

노인 분들께 대접하는 것은 우리 '아름다운 조리 나눔터' 뿐만 아니라 다른 조리 부서에서도 어른들이 드실 간단한 애프터이자와 우리 동아리에서 만들지 않은 다른 종류의 음식들을 대접하며 우리 동아리를 뒤에서 든든히 지원해 주고 있다.

준비가 끝난 뒤 남학생들이 어른들의 마중을 나가게 되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대부분인지라 몸을 못가누시는 분들은 등에 업고, 부축도 해드리고 휠체어를 밀어드리며 평가실로 노인 분들을 모시고 오는데 그런 친구들이나 선배님들의 모습을 볼 때면 그렇게 아름답고 감동적인 광경이 아닐 수 없다. 그 광경을 보고 있자면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고 포근한 냄새가 나는 기분이 든다.

노인 분들을 평가실로 모셔 온 뒤 우리들은 한 명 한 명 불편하신 분들 옆에 의자를 두고 앉아 어른들의 식사를 돕는다. 너무 큰 고기나 김치는 잘게

썰어 드리고 팔이 불편하신 분에게는 식사를 먹여드리고, 곁에서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말 상대도 해 드려가며 마치 친할머니와 친손자와의 관계처럼 따뜻한 감정을 느끼며 그 마음을 그분들에게도 전해 드린다.

정이 많으신 할머니들께서는 혼자 드시지 않고 곁에 있는 우리들에게 자꾸 음식을 권하시고는 하신다. 할머니들이 오히려 나에게 음식을 먹여주실 때면 나는 돌아가신 외할머니 생각에 울컥하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이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낄 수 있다. 나는 어릴 적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노인 분들께서 식사 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면 남다르게 가슴이 저리고 코끝이 찡해온다. 우리가 만든 음식들을 이도 없으신데 우물 우물 맛있게 드시는 할머니들의 모습을 볼 때면 뭉클해지는 게 나 자신도 뿌듯해진다.

우리 동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이러한 활동들을 해가며 더욱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 앞장 설 것이다. 3학년 선배들이 졸업을 하게 되는 내년이면 우리 2학년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커지게 된다. 내년에는 더 많은 동아리 부원들을 모아 더욱 번창해 나가며 더 좋은 환경에서 어른들을 모시고 먼 곳에 계신 분들을 더 자주 방문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졸업하여 대학에 가더라도 봉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봉사 동아리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동안은 끝까지 봉사활동을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마음먹을 수 있기까지 봉사 동아리의 가입이라는 선택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 봉사 동아리는 나에게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꼭 해야 할 일과 따뜻한 마음, 그리고 서로서로 도와가는 이웃의 정을 알게 해주었다. 나 하나의 도움으로 몇 사람이 행복할 수 있고, 그러한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며 성취감 또한 느낄 수 있었다.

조리과의 봉사 활동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도 나의 조리 기능 향상을 더불어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봉사 동아리는 나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해준 스승과 같은 존재이다.

봉사 동아리에 들어와 활동을 하면서 나는 봉사란 무엇인지 남을 돕는다는 게 얼마나 기분 좋고 즐거운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나 하나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봉사에 동참하여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이웃과 하나 되는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나는 오늘도 소망한다.

청소년을 21세기 주역으로 육성

||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자율참여 확대

- 청소년들의 정책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연 1회 이상 청소년과 도지사와의 만남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도 청소년자치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연 2회 이상 청소년 자치활동 프로그램을 보살펴 나가겠습니다.
- 청소년의 독립된 인격체 함양을 위한 자원봉사박람회 1회, 문화정보지 발간 4회, 성년의 날 행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 국제화 · 정보화 시대의 주도능력 배양

- 국제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과 상호 문화교류를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를 연 5회 이상 실시 하겠습니다.
- 청소년의 정보활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도 홈페이지에 사이버 백제역사 문화관, 예절마당 등을 운영하여 청소년 학습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 청소년의 문화예술 감수성 함양과 수련활동 지원

-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문화의 집 7개소를 효율적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 청소년들의 문화 · 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하여 어울마당, 음악회, 동아리육성 등 3가지 이상의 시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 청소년 수련시설 13개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속적인 수련활동 공간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모두가 참여하는 청소년 보호

- 청소년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하여 영재육성장학제도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하겠습니다.
-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청소년자원봉사센터 1개소 이상을 운영하고 15개 이상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봉사활동터전을 30곳 이상 확보하여 봉사활동을 돕겠습니다.
- 청소년의 진로, 이성, 성문제 등 고민을 풀어주기 위하여 도 청소년종합상담센터 1개소를 운영하되, 상담프로그램을 확대 개발하여 나가겠습니다.
-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환경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연 2회 이상 유해업소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www.bongsai.or.kr



충청남도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Chungcheongnam-do Youth Volunteer Center

충남 논산시 취암동 19-1 공설운동장내 (320-802)
전화 | 041·736·9003(4) 팩스 | 041·733·1984